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6.30.(토) ~ 2018.7.27(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수빅에 위치한 대학교로 시설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필리핀치고 청결하다고 생각했고 밖에 위치한 수영장 시설이 정말 좋았다, 하지만 화장실이 무너지는 등의 사고가 있어서 그리 튼튼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p>
수업	<p>수업은 일대일 수업 4시간, 그룹수업 4시간으로 이루어져있다. 아침8시에 수업이 시작해 오후 5시에 끝나서 초반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p> <p>강사들은 보통 우리도래로 정말 발음이 좋은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필리핀 억양이 강해 영어를 쓰시는데도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서 소통하기 힘들었던 강사도 몇 명 있었다.</p> <p>수업준비는 그 전날에 했던 것을 간단히 읽고만 가도 충분했고 선생님이 따라 숙제가 있는 선생님도 있고 없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대체로 없었고 있어도 금방할 수 있는 숙제였다.</p>

Activity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1.암바야 코브 리조트: 상위층만 들어갈 수 있는 리조트로 우리는 수영장 시설을 이용했는데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지시해준 것이 없어서 다른 관광객과 마찰이 있었고, 수영장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이 너무 많아 생각보다 별로였다. 추가비용은 1000페소를 걷고 남은 돈은 돌려주었다. 나는 대략 500페소를 썼다.</p> <p>2.요트투어: 기상이 안 좋아 취소되었다.</p> <p>3.마닐라투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약3-4시간을 걸려 마닐라에 간다. 마닐라에 도착한 후 팀을 꾸려 미션을 하는데 더운 날씨에 걷는 일이 많아 힘들었고, 몰오브아시아에서 집합장소를 사전에 찾아놔야 하는데 매니저랑 티처들이 몰라 해서 오랫동안 헤맸다는 친구들 얘기가 있어 매우 불만족스러웠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이 우기철 이라서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습하지 않아서 만족스러웠다. 수업시간에는 에어컨이 계속 틀어져있으므로 긴팔을 꼭 챙겨와야한다.
안전	모든 곳마다 경찰이 배치되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기숙사가 생각보다 깨끗하긴 했지만 화장실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 자주 수도꼭지에서 흙색 물이 나와 많이 불편했다. 또한 제일 큰 문제점으로 와이파이가 자주 고장 났고, 고쳐달라고 말해도 빨리 고쳐주지 않았고, 여러 번 따져야 그때서야 고쳐줘 정말 별로였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나는 주로 아침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나가서 사먹었다. 초반에는 밥이 너무 잘 나오고 양도 풍족해 만족스러웠지만, 점차 갈수록 양도 줄

	고 밥도 별로여서 불만족스러웠다.
교통	주로 학교가 끝난 후 샌딩서비스를 이용해 FB를 타고 시내에 나갔고 돌아올때는 택시를 이용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7,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출국세	12000	
암바야코브 리조트	10000	
티처들 선물	50000	
개인적 비용(기념품등)	400000	
합계	1,199,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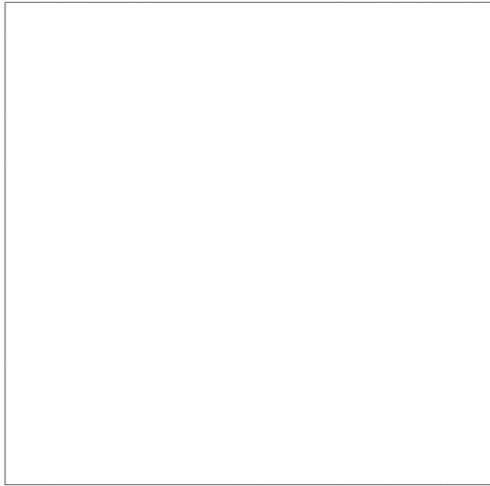
티처들 선물을 미리 한국에서 사오면 좋을 것 같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과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 좋은 경험이었다. 솔직히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영어실력이 향상된 것 같지는 않지만 확실히 듣기실력이 이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게 된 것이 영어실력 향상보다 더 좋은 경험이었다. 하지만 어학원의 담당자나 학생 매니저들의 위급상황에서의 대처가 너무 미숙해 생활하는 내내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았고 특히 마지막 주에는 티처들,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 다 달라 계속 일정이 바뀌었고 짐을 싸야하는 우리 입장에서 혼동되어 진짜 불편했다. 다음번에는 이러한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첫 주 수요일 액티비티 활동시간의 모습</p>	<p>졸업식날 에이스 티처와 함께</p>
	
<p>mmc 일등기념 루니 티처랑 사진</p>	<p>마지막 수업날 다른 방 학생과 티처들과</p>



수업 마지막날 밥티처와 사진



바비큐날 단체사진